

恐怖의 뉴캐슬

뉴캐슬이 또다시 만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2월초. 질병의 무방비 지대라 일컫는 우리나라에선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질병이 流行할 것 이라는 예상은 하였지만 이렇게 빨리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작년 하반기 以來 걸치는 사료가 인상에 사료질의 저하, 각종 질병, 특히 뉴캐슬이 全國적으로 만연하여 양계장을 휩쓴후 그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뉴캐슬이 번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작년 추석이래 하향선을 내리긋고 있는 양계업에 업친데 덩친격으로 각종 여파의 도전이 우리들 앞에 닥쳐 우리 양계가들은 스스로 양계산업위기 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 現在의 苦難을 타개하는데 부심하고 있는 이때 또 하나의 불청객이 찾아온 것이다.

—방관할 수 없는 소식 초비상으로 과감히 퇴 치하자—

도전에 대한 응징은 필요한 것이다. 勝利를 갖기 위해선 사전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적을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 뉴캐슬의 침입(혹은 다른질병 일지라도) 했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양계업체는 모두 초진장 상태로 이 질병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작년도에도 우리는 뉴캐슬의 전국적 만연으로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던가!

뉴캐슬은 양계인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우리가 국민총화로 복귀의 침략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듯이 양계인 모두 단결하여 이를

예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작년과 같은 쓰라린 경험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선 양계인은 철통같은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최근 길동, 갈매리등지에서 번지고 있는 뉴캐슬, C.R.D 증상은 그 피해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고 하나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뉴캐슬인지, C.R.D인지 지역양계인이 쉬쉬하며 그 질병의 병성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한 확실한 병명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질병이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은 너무나 많은 것이다.

본 월간양계 취재부에서 취재차 본 지역에 나간 것은 지난 2월 23일 토요일, 현지를 찾아 몇몇업자를 만나 보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다. 현지에 나가 몇몇업자를 만나 이곳까지 나오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전 양계인을 위해 하나의 경종을 울려 작년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의도를 전했을때 업자들의 태도는 냉담했다. 질병의 만연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실득끝에 약간의 질의가 오고갔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질병은 뉴캐슬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병행하여 오고 있는데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철저히 집중했는데도 발생되며, 전에는 호흡기 증상에 「타이탄」과 같은 약을 투여하면 즉시 회복되었는데 요즈음은 예방과 치료에 어떤 對策을 강구해야 좋은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다. 원래 뉴캐슬은 법정전염병으로 뉴캐슬의 발병보고가 있으면 관계관을 現地に 파견하여 매물또는 소각시킬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하에서는 그렇게 처분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작년도의 뉴캐슬 발생상황을 보면 총질병 200건중, 56건(28%)

蔓延 우려

이 뉴캐슬 이었는데 의뢰된 것만을 보아도 뉴캐슬이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질병이 번질 것이 예상된다. 정상적인 백신이라도 뉴캐슬 발생의 여지가 있다. 예방 접종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예방접종은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뉴캐슬이 발생하였고 지금 뉴캐슬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단순한 백신 접종을 한다해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뉴캐슬을 예방하는 길은 단한가지 지역별로 공동 방역 체제를 취하는 것이다. 일정한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동시에 소독을 실시하는 일이다. 소독을 완전히 실시한후 계사를 2주간 비워놨다가 40~50일령된 백신 미접종병아리를 길러보아서 뉴캐슬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양계를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뉴캐슬 미발생지역에서 공동 육추를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혈액검사를 하여 역가가 인정되는 것만 키우는 방법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월간계양지는 수차에 걸쳐 올해도 전국적으로 뉴캐슬이 대대적으로 번질 것을 예상하고 매월 양계가들에게 뉴캐슬에 대한 기사를 게재 했는데 이번호에 다시 한번 뉴캐슬 만연을 우려한 예방대책에 힘쓸 것을 모든 양계가 여러분께 주시시키면서 뉴캐슬 백신접종 기본프로그램을 아래에 소개하

生毒 + 不活化백신

基礎接種(생독)			補強接種(사독)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	↓	↓
1~4日令 生 1首分	2週令 生 1首分	4週令※ 生 1首分	2個月令 不 1.0ml	4個月令 不 1.0ml	每 3個月 不 0.1ml

※ 일반적으로 양계장에 권장하고 싶은 방법.

不活化 백신의 補強接種은 2個月令부터 시작하는 것이 理想的이며, 4週令의 生毒 백신/首分 대신 下活化백신 1.0ml를 접종해도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

고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계역과장의 의견을 물어 지상을 통해 보도한다.

박근식과장: 뉴캐슬은 우리 양계가 들에 가장 무서운 병이다. 작년도에는 우리는 뉴캐슬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다. 그때의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 양계가는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하겠다. 현지에 나가 병독의 역학적검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으나 작년도의 발생 경과로 보아 올해도 뉴캐슬이 번질가능성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양계가들 대다수가 이러한 무서운 질병을 숨기려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뉴캐슬은 모든 양계의 敵이다. 붙은 조금 붙었을때 끄기는 쉬워도 이미 확대된 다음에는 좀처럼 끄기는 힘든 일이다. 만약소규모로 발생증상이 나타났을때 양계가는 과감히 도태를 하여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초기에 그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병에 걸린 닭이나 만연지구의 닭을 매몰 도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으로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것이다. 우리 방역관은 언제든지 양계가의 병성감정의뢰를 해드리며 필요하다면 현지에 파견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계인 스스로 총화 단결 뉴캐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겠다.